

# 남북 교류→평화 통일 기반 조성...기금 활용 범위 확대

## 남북 협력기금 어디에 쓰이나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조례를 개정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남북 교류'에서 '평화 통일 기반 조성'까지 확대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막힘에 따라 기금 활용 범위를 늘려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가 제출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기금을 활용해 기존 남북 교류 협력 사업과 함께 광주시가 실시하는 통일 교육·홍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 등 평화 통일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했다.

전남도는 이미 지난해에 기금 용도를 '평화 통일 기반 구축 사업 추진'과 '전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까지 확대해 놓은 상태다.

앞서 시·도 기금은 말 그대로 남북 교류와 관련한 행사비·사업비, 북한 지원 등의 의미가 강했지만 조례 개정에 따라 활용 범위와 용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지원(3000만원) ▲2021년 남북 미술·사진 전시회 지원(1억9000만원) ▲2019년 한반도 평화 기원 문화행사 지원(3천·4000만원) ▲2018년 북한 수해 지역 협력 물자 지원(3억원) 등에 기금을 활용해 왔다.

전남도는 ▲2021년 대북 수해 구호 및 영양 증진 지원(5억원) ▲2020년 대북 코로나19 방역물자 지원(2억원) ▲2020년 대북 의약품 지원(3억원) ▲2018년 북한 수해 피해 공기를 지원(3억원) 등에 기금을 사용했다.

## 광주시·전남도 조례 개정 활용 범위 늘려 효율성 높여 통일 교육·이산가족 행사 지원

기존 기금은 남북 교류와 관련한 행사 또는 북한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이었지만 조례가 개정된다면 더 다양한 분야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광주시 기금의 활용도는 더 커질 전망이다.

시는 개정안에 기금의 용도 범위를 남북 교류에 한정하지 않고 북한의 재해·재난·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기금 조성·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지출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남도는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800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수기 공모전(2860만원) ▲북한이탈주민 마음다듬기 프로그램(3000만원) ▲한반도 평화공동사업(1억) ▲찾아가는 통일안내소 운영(2000만원) 등 5개 사업(2억 5860만원)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광주시 업무보고 당시 기금 활용 방안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던 채은지(민주·비례) 광주시의원은 "당장 남북 교류나 협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평화 통일 기반 조성 등 관련 사업을 통한 준비 과정도 중요하다"며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잠자고 있던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는 것은 남북 협력이 정말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22일 오전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 감사가 열리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 GGM 노조·군공항 이전 쟁점...초등 학부모 10시 출근 호평

### 행안위, 광주시 국정감사 지스트 교수·학생 유출 문제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광주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광주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 정율성 역사공원 등 지역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심야 어린이 병원과 중소기업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등은 여러 의원으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광주 시청 중회의실에서 3시간여 광주시를 상대로 국정 감사를 벌였다.

광주형 상상 일자리 모델인 GGM 노동자들이 노조에 참가한 것을 두고는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용진군) 의원은 "(GGM 노동자들이) 누적 생산 대수 35만대를 넘기 전까지 노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깨고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다"며 "(파업 의결) 찬반 투표가 85.97%로 가결됐고, 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을 하게 되면 결국 현대차는 위탁 생산을 철회하고 상생형 일자리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지정 광주시장은 "노사 간 협의가 잘 안돼서 파업 의결을 했지만 최근 다시 노사 간 합의가 됐다"며 "표결해 놓은 파업은 없었던 걸로 됐기 때문에 파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오혜인(비례) 의원은 "5년 전 협약에 적정 연봉 기준이 3500만원인데, 협약 내용에 '임금 인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겠다'고 명시돼 있다"며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두고 계산하면 적정 연봉은 4900만원이 넘는 데, (광주시가) 함께 책임을 고민해달라"고 꼬집었다.

광주·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전남도·무안군과의 소통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대구 출신 국민의힘 이달희(비례) 의원은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에 비해보면 강기정 시장의 '플랜B'는 무안군민에게 협박으로 느껴진다"며 "합충차사다, '양심 불량이다', '무안군수는 막힌 행정을 하고 있다' 등 사이드 발언이 때로는 행정의 충동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사이드 발언'은 군민 입장에서 '충말'을 받는 느낌이다. 대도시 기관단체장이 군수님들과 협의할 때는 다 내려놓고 설득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논란을 빚은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장) 의원은 "북의 앞잡이가 돼 남침한, 적국에 기여한 사람을 광주에서 추모하는 게 맞나"라며 "정율성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한중 문화 교류재단이라든지 협력사업 장소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강 시장은 "이게 정말 문제라면 감사패를 줬던 노태우 정부부터 사과하고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한중 우호 관계에서 시작된 선의로운 사업인 만큼 수차례 정부에 '광주시가 알아서 할 테니 맡겨달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AI)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학생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은 "광주 AX 실종벨리 조성과 관련해 물리적인 걸 만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며 "AI 사업은 결국 사람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리 잡지 못한다. AI 영재고 추진도 그 연장선인데, GIST 교수·학생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심야 어린이 병원과 중소기업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등은 여러 의원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민주당 채현일(서울 영등포구갑) 의원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중소기업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등을 언급하며 "최근 의료 대란으로 응급실 가기가 두렵고, 공무원과 달리 일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근무 중 휴가 시간 정책이 없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큰 문제는 저출생이고, 광주시가 가장 혁신에 앞서고 있다"고 칭찬했다.

한편 의원들은 이날 긴장이 흐르는 국감 현장 속에서도 광주 태생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KIA 타이거즈의 정규 시즌 우승을 축하하는 등 훈훈한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전남 국립의대 설립 대학 11월 25일 결정

30년 숙원인 전남 국립의대가 설립될 대학이 오는 11월 25일 결정돼 정부에 추천된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및 대학병원 신설 지역을 정부에 추천하기 위한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하 용역사)은 22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합의대 추천과 공모 추천 설립 방식별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용역사는 오는 2026학년도 의대 개교를 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예비인종 평가 신청, 대학입시 전형계획 공표 등 법적 절차를 감안해 통합의대 방식 또는 공모에 의한 추천대학 선정 등 어떤 방식이든 늦어도 11월 25일까지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용역사는 오는 28일까지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에 합의하면 '통합의대'로 진행하되, 통합 합의가 안 되면 공모를 통해 순천대와 목포대 중 한 대학을 정부에 추천하기로 했다.

용역사는 이같은 점을 들어 양 대학 관계자에게 28일까지 통합합의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공모 추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통보했다는 게 용역사 설명이다.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하면,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설립방식을 결정하고, 양 대학이 함께 제출한 통합의대 계획안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거쳐 전남도 추천안으로 통합의대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합합의서에는 통합 목적·원칙·시점, 협의회 구성, 의대 유치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통합 합의가 안 될 경우 이달 29일 양 대학과 평가 기준을 논의할 대학 설명회 및 공청회를 시작으로 31일 제안서 공모 설명회,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공모,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평가를 통해 최종 추천대학을 선정하고 25일에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모 마감(11월 20일) 전에 양 대학이 정부와 협의하고 통합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모를 잠시 보류하고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통합의대 방식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자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교회)



총장  
김경운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 범 예 능	유아교육과	8	2	
	음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 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리23소로 36

www.kwangshin.ac.kr